

도서관 스스로 책 고르기 체크리스트

저희 집에서는 엄마가 읽고 싶은 책 대신, 구름이가 도서관에서 읽고 싶은 책을 직접 골라 오게 했어요. 아이마다 다르겠지만, 같이 해보실 때 참고하시라고 정리했습니다.

도서관 가기 전, 저는 이런 말을 줄여 봤어요

- "이런 건 유치하잖아" — 아이가 손에 쥔 책에 **평가를 붙이지 않기**
- "이걸 읽어야지" — 엄마가 읽고 싶은 책을 **끼워 넣지 않기**
- "왔으니 앉아서 읽고 가자" — 빌려 오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**생각해 보기**

같이 해보시면 어떨까요 — 4단계 책 고르기

단계	해볼 것	아이와 나눌 말 (예시)
1. 표지 고르기	서가를 천천히 걸으며 눈에 띄는 표지 3권 고르기	"어떤 그림이 제일 눈에 띄었어?"
2. 첫 장 보기	편한 자리에서 첫 페이지만 훑어보기	"뒤가 궁금해? 다른 책도 볼까?"
3. 작가 보기	마음에 든 책의 글·그림 작가 이름 확인하기	"이 작가님이 쓴 다른 책도 있을까?"
4. 내가 빌리기	대출 기계에 아이가 직접 바코드 찍기	"오늘 네가 고른 책이야. 어디서 먼저 읽을까?"

우리 집 읽기 자리 점검

- ☐ 책장 가까이에 앉거나 누울 수 있는 자리(빈백·쿠션)가 있나요?
- ☐ 바른 자세를 정해 두지 않고, 아이가 편한 자세로 읽게 두고 있나요?
- ☐ 엄마·아빠도 옆에서 각자 책이나 일을 하고 있나요?
- ☐ 이동할 때(차·지하철·기차) 아이가 고른 책 한 권을 가방에 넣어 두나요?

체크가 적어도 괜찮아요. 한 칸씩 해보시고, 우리 아이에게 맞는 것만 남겨 주세요.